대구·경북 외국인주민 20만 시대… 지역 인구지형 달라진다

경북 8% 늘어 시도 중 증가율 최고
경산 3258명 늘어 전국 시군구 최다
영양 42.5% 급증 속 일부 시군 감소
유학생·산업인력 등 거주 유형 차이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정착책 과제



대구·경북 외국인주민이 2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경북은 전국 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경산·경주와 일부 감소 지역의 차이가 뚜렷해 맞춤형 정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북의 외국인주민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과 경주가 증가 규모를 이끈 가운데 영양과 봉화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포항과 울진·예천·울릉은 오히려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구·경북 외국인주민은 20만 2661명이다. 전년 19만279명에서 1만 2382명 늘어 증가율은 6.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경북 거주 외국인주민은 13만9007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82명 늘었고 증가율은 8.0%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 1위이며 증가 인원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경북 인구에서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중도 5.4%로 전국 평균 5.1%를 넘어섰다.

대구는 6만3654명으로 전년보다 2100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3.4%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7%로 경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산으로 2만8005명이 거주했다. 경주가 2만4559명으로 뒤를 이었고 포항 1만3356명과 구미 1만2576명도 1만명을 웃돌았다.

나머지 지역은 칠곡 7828명, 영천 6826명, 김천 6774명, 상주 5212명, 안동 5094명, 성주 3722명, 영주 3442명, 고령 3395명, 문경 2911명, 울진 2689명, 청도 2246명, 영덕 2206명, 의성 2055명, 예천 1699명, 봉화 1658명, 영양 1268명, 청송 1214명, 울릉 272명 순이다.

증가 인원 기준으로는 경산의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경산은 전년 2만4747명에서 3258명 늘어난 2만8005명을 기록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증가 인원 1위에 올랐다. 증가율도 13.2%였다. 경주는 2만2507명에서 2만4559명으로 2052명(9.1%) 늘어 전국 주요 증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두 지역의 외국인주민 구성은 달랐다. 경산은 전체 2만8005명 중 유학생이 1만3957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주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6157명으로 집계됐고 외국국적동포도 4723명에 달했다.

인구 규모와 별개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이었다. 고령은 전체 인구의 11.1%가 외국인주민으로 대구·경북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산과 경주가 각각 9.4%였고 성주 9.2%, 영양 8.2%, 칠곡 7.3%, 영천 7.0%, 영덕 6.8%가 뒤를 이었다.

고령의 외국인주민 3395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172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주도 3722명 가운데 1523명이 외국인근로자로 분류돼 두 지역 모두 산업인력 중심의 거주 특성이 확인됐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영양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가팔랐다. 영양의 외국인주민은 890명에서 1268명으로 378명 증가해 42.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봉화 역시 1341명에서 1658명으로 317명 늘어 23.6% 증가했다.

반면 경북의 전반적인 증가 흐름과 달리 포항과 울진·예천·울릉은 감소했다. 포항은 1만3421명에서 1만3356명으로 65명(0.5%) 줄었다. 울진은 2772명에서 2689명으로 83명(3.0%) 감소했고 예천은 1790명에서 1699명으로 91명(5.1%) 줄었다. 울릉도 282명에서 272명으로 10명(3.5%) 감소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와 달성군, 북구에 외국인주민이 집중됐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달성군으로 5.2%였다.

대구 안에서도 거주 유형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달서구에는 유학생 5236명이 거주했지만 달성군은 외국인근로자가 3746명으로 유학생 238명보다 훨씬 많았다.

대구·경북 전체 외국인근로자는 경북 3만1535명과 대구 1만338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은 경북 2만1333명, 대구 1만782명이었다.

/대구=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경북, 산하기관 청렴도 첫 9점대 진입

23개 기관 평균 9.18점 기록
청렴노력도 상승 속 체감도↓

경북도는 2026년 산하 출자출연·보조기관 23곳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9.18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평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9점대에 진입했으며, 지난해보다 0.32점, 2021년보다 0.76점 상승했다.

평가 항목 중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8.45점에서 9.09점으로 0.64점 올랐다. 반면 외부체감도는 9.74점에서 9.53점으로 0.21점, 내부체감도는 8.80점에서 8.39점으로 0.41점 하락했다.

등급별로는 2등급 7개, 3등급 9개, 4등급 6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1등급은 없었다. 3등급 이상은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기관 간 최고·최저 점수 차이는 1.36점으로 줄었다.

2등급 기관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연구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김천의료원이다.

경북도는 도민의 외부체감도, 직원의 내부체감도, 반부패 정책 추진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감점을 적용해 평가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으로 제외됐으며, 지방의료원 3곳은 별도로 평가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당진 장고항, 1954억 투입해 수산거점 조성

국가 거점어항 선정·AI 어업관리 도입

충남 당진 장고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총 1,954억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어업관리와 생산·유통·가공·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서해안의 핵심 수산경제 허브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23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당진 장고항을 비롯해 전남 진도 서망항, 강원 속초 대포항 등 전국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장고항은 서해 어종 변화 대응에 유리한 입지와 수도권 인접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당초 490억 원 규모였던 기획안을 해수부와의 협의 끝에 신규 국비 802억 원을 포함해 1,054억 원 규모의 신규 공모사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기존 연계사업 900억 원을 더해 총 1954억 원(국비 1239억 원·지방비 650억 원·민간자본 6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크게 기반시설 정비와 산업 기반 구축으로 나뉜다.

우선 409억 원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대형선단 유치를 위한 항만 준설(207억 원), 저온유통 콜드체인 허브(57억 원) 등이 들어선다.

/당진(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업종 확대해 2차 분양

19개 필지 공급·이전 기업 우대

고양시가 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첨단제조시설용지 19개 필지(총 5만 7,006㎡)에 대한 2차 분양에 나선다.

이번 공급부터는 기존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됐던 입주 대상을 바이오·의료·항공·우주위성·드론·로봇·반도체·전기전자 등 시가 인정하는 첨단기술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필지별 허용 업종도 다양화했다.

토지 공급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유지하되 우선순위를 도입했다. 동일 부지 경합 시 고양시 내 이전·확장 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확장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해 외부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덕, 원자력 포럼서 발전 전략 모색

19일 개최·기업 유치 등 성장책 논의

원전 유치가 영덕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려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아우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영덕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제3회 원자력 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영덕군과 (사)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등 6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한다. 2024년부터 이어진 세 번째 행사로 원전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룬다.

주요 과제는 관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인구 유입이다.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기반을 함께 확충하고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주민이 체감하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의한다.

한병문 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박영식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조주홍 영덕군수,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도 축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겸 KAIST 교수가 맡아 기후위기와 AI 시대 원자력의 역할을 설명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원

경남도는 진주시·의령군·함안군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발굴과 국토교통부 공모 준비를 지원한다. 16일 시군과 발표자료 초안을 공유·검토하고, 20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안사업 사전검토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해 지역별 주거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살폈다. 지난달 사업발굴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인구·청년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사업 구상을 검토했다.

/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포항시

포항국제불빛축제 19일 개막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는 11월 19~21일 열리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가 행사 준비와 안전관리에 본격 돌입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당초 5월 말 예정됐던 올해 축제는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11월로 연기됐다. 축제는 19일 송도부두 미디어파사드 점등식과 시민불꽃쇼로 막을 올려, 20일 아시아 DJ 페스티벌과 나이트카니발로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프랑스·일본의 국제불꽃쇼와 한국의 그랜드피날레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평택시

'미래모빌리티 포럼' 개최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평택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2026 평택 미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술이 움직이고, 도시가 달라지는 시간'을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주요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산업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내 완성차 기업,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첨단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평택(경기)=김예원 기자 ywon@

영양군

김장철 맞아 영양고추 홍보

김치의 색과 맛을 좌우하는 고춧가루 선택이 본격적인 김장 준비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영양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영양고추 알리기에 나선다. 군은 산지의 재배 여건과 지리적표시 등록 이력을 앞세워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지역 농가의 판매 확대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치의 붉은 색감과 양념의 깊이를 결정하는 고춧가루는 김장 재료 가운데 빼놓기 어렵다. 배추와 무를 준비하는 것만큼 원료의 품질을 살피는 일이 김장 맛을 좌우하는 만큼 영양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고춧가루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